

요양시설, 오는 25일부터 대면면회 중단

‘30만 확진 대비’ 방역수칙 조기 시행...종사자 주1회 PCR 검사 요양병원 확진시 보건소 통해 치료제 처방...기동전담반 확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감염취약시설 대책을 내놨다.

중증과 예방 핵심 수단인 먹는 치료제 처방을 늘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의료기동전담반을 동원하고,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지자체 전담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치료제를 적극 투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파주 민들레병원을 비롯해 요양시설 18곳, 요양병원 6곳, 장애인시설 5곳, 정신병원 3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구성된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을 활용해 확진자·사망자 수, 투약율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 합동전담대응팀 618팀(2732명)이, 시·도에 전담 대응지원팀 56팀(258명)이 편성돼 있다.

특히 요양·정신병원의 경우 확진자

발생 즉시 보건소를 통해 충분한 치료제를 공급해 신속한 원내 처방이 이뤄지도록 한다. 처방률이 낮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확진자 30만명 발생에 대비해 세운 방역수칙도 오는 25일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백신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자이면서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4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사람만 면제된다. 새 변이 확산에 따른 돌과감염, 접종효과 감소도 고려한 조치다.

코로나 유행 안정과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말 완화했던 요양시설 대면 면회, 외출·외박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한다. 입소자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로만 제한되며, 외부 프로그램은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

한다. 또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선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확진 즉시 의료진을 투입하고 가급적 당일에 처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 요양시설의 확진자 진료를 위해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96개 팀이 있다.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의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해 필요 시 감염취약시설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발적 실천을 좀 더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위험군의 경우 불요불급한 외출·만남 등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 방문 및 실내취식, 신체접촉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위험군 동거인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공공분야에서 자발적 거리두기 실

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활성화, 모임·행사·회식 자제 등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민간에서도 병가, 유급휴가,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을 활용해 아픈면 직장·학교·학원 등에 가지 않고 일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현 유행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차체에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당부를 드리는데, 근로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이라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집단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보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을 쉬고 이에 따라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아프면 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했다. 김재현기자



완도해경, 완도수산고등학교 해상훈련 안전관리 지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지난 15일, 완도수산고등학교 해상훈련(사고대 처요령·퇴선훈련)간 안전관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신화유치원 전남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우수상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19일 어린이들의 동심으로 안전을 노래하는 제 17회 전남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신화유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광주 동부소방, 동구 현철의 집 소방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18일 오전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동구 현철의 집을 방문하여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도착과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슬비기자



담양소방, 옥내소화전 관창 도난주의 당부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광주광역시 및 광양시의 아파트 옥내소화전 소방노즐(관창)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내 아파트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지방보훈청, “경비지도사과정” 위탁교육 개강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종배)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정부혁신 일환으로 7월 19일 송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경비지도사 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정승호기자



광주남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첫 ‘통일강사’ 배출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2명이 시민 통일강사로 변신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 역할에 나선다.

최이슬기자

확진자 ‘거리두기 당시 수준’ 근접...자영업자 ‘불안불안’

확진자 7만6402명...이틀 연속 7만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에 가까워지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며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을 사이에서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 인원수 제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며 불안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6402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 7만 3582명을 기록해 83일 만에 7만명대로 올라섰는데, 이틀 연속 7만명대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4만266명)보다 3만6136명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으로 오는 8월에는 신규 확진자가 최대 28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예상보다 유행 규모가 더 커져 일일 확진자

수가 최대 40만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코로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할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과 모임 등이 규제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4월17일까지 실시됐다. 당시 일일 확진자 수는 9만 2970명인데, 현재 유행 규모와 약 2만명 차이는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박모(36)씨는 “거리두기를 시작하면 식당이랑 실내 체육시설이 가장 먼저 규제 대상에 들어가질 않냐”며 “사실 아직까지는 정부가 이전과 같은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심 불안한 마음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42)씨는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최근 식사재고가 올라서 매출이 또다시 떨어지고 있다”며 “확진자 수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하루하루가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관련 커뮤니티 등을 보면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과 거리두기 관련 정보 입장 등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불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다. 요식업 자영업자 중심의 한 인터

넷 커뮤니티에는 “현재 확진자 수 증가 추세를 보면 여름이 지날 때쯤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될 것 같아 불안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확진자 증가로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거나 확진자가 폭발했다는 등의 뉴스가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더욱 안다니게 될 것 같다”고 적었다. 정승호기자



나무 아래서 나오는 시원한 쿨링 포그

더운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 인근에 쿨링포그가 분사되고 있다.

배고픔 못 이기고 음식 훔쳐 달아난 40대 구속

배고픔을 못 이기고 음식을 훔치다 집주인을 때리고 달아났다가 한 달 만에 검거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이 사는 농막에 침입해 음식을 훔치다 들켜 주인을 우산으로 때린 혐의(준강도·특수절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5시에 광주 북구 석곡동 한 농막 잠금 장치를 공구로 부수고 들어가 빵·음료수·캔맥주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때마침 마주친 주인을 우산으로 수차례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인근 야산 속 외딴 폐가에 살며 배가 고플 때마다 마을에 내려와 음식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에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어 잠복 수사 끝에 이달 18일 오후 A씨를 붙잡았다. 기동취재본부